

새로운 사업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브로드캐스팅 이사회 의장
김동환 동문(정치외교학 86)을
만나 봤다.



특정 단과대학 및 학과로 전출·전입 몰려 … 대책은?

대학주보



3년 만의 ‘열광’
2022 가을 대동제

양 캠퍼스의 2022 가을 대동제가 개최됐다. 국제캠퍼스는 지난 9월 26일에서 28일까지 ‘희야: 경희의 밤, 경희로운 BOMB’ 이, 서울캠퍼스는 지난 28일에서 30일까지 ‘MASTERPEACE: Ready, Set, Play’가 열려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진행됐다.

강다은 기자 ekdms200202@khu.ac.kr

서울총학 학생회칙 개정 ‘시동’

강다은 기자 ekdms200202@khu.ac.kr

【서울】오는 12월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칙이 개정된다. 개정된 총학생회칙은 개정 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적용을 예정으로 한다.

서울캠 총학생회(총학)에 따르면, 총학생회칙 개정을 위해 현재 TF(Task Force)팀을 구성 중에 있다. TF팀이 구성되면 주 2회 이상의 대면 회의를 통해 총학생회칙에 서의 보완점과 개선점에 대한 개정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캠 총학은 “지금까지 꾸준히 총학생회칙 개정이 진행돼 왔지만 부분적으로만 개정이 진행됐다”며 “전체적인 단어의 통일성 및 맞춤법 등 자구의 수정과 미비돼 있는 세부시행세칙, 새로운 시대 흐름에 발맞춘 제도 신설 등 개선할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총학생회칙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체적인 단어의 통일성 및 맞춤법 등 자구 검토 ▲미비돼 있는 세부시행세칙 제정 ▲학생자치 참여 증대를 위한 제도 신설 ▲시대 흐름에 맞춘 개정 방안 ▲총학생회칙 개정에 따른 타 단위 학생회칙 등과 상이한 부분 검토 ▲총학생회칙 개정안 작성 순으로 이뤄진다. 이후 서울캠 학생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의 의견수렴을 진행해 최종적인 개정안 작성을 통해 총학생회칙을 개정하는 것이 서울캠 총학의 목표다.

특히 서울캠 총학은 미비한 세부 시행세칙 제정과 학생자치 참여 증대를 위한 제도 신설을 중심으로 개정 논의를 이어간다. 현재 서울캠 총학생회칙에 명시돼 있는 세부시행세칙은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재정운용세칙’과 ‘선거시행세칙’이다.

▶5면으로 이어짐

반도체 융합전공, “양 캠퍼스 잇는 다리 될 것”

강나윤 기자 nadori814@khu.ac.kr

반도체 융합전공이 양 캠퍼스(양캠)를 아우르는 형태로 개편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우리학교는 서울캠 이과대학 소속 학과인 물리학과와 정보디스플레이학과의 요청으로 반도체 융합전공을 개설했다. 반도체 분야에서 앞서 있는 국제캠과 더불어 서울캠에서도 반도체 인재 양성에 참여하자는 목적으로서였다.

융합전공 제도는 모집단위에는 설치돼 있지 않으나 2개 이상의 학과(전공)가 융합해 편성된 새로운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다. 융합전공은 캠퍼스 구분 없이 이수할 수 있으나, 참여학과에 소속된 학생들만이 본 전공(제1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다. 이에 반도체 융합전공은 아직까지 학생을 모집

한 바 없다. 분야 특성상 ▲전자정 보대학(전정대) ▲응용과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공과대학과 연관성이 높으므로 관련 학과를 포함해 해당 전공을 개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반도체 융합전공이 개편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채, 해당 전공이 서울캠에 신설됐다고 알려져 논란이 됐다. 우리 학교는 캠퍼스 이원화 정책에 따라 순수학문 중심의 서울캠과 응용학문 중심의 국제캠으로 구분돼 있다. 응용학문에 속하는 반도체 융합전공에 국제캠이 제외된다면 우리학교가 설명해오던 캠퍼스 이원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 융합전공이 서울캠에 개설되는 것은 국제캠에 대한 인식 관련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캠 이공계열

학생들의 반발이 거셌다.

제다가 우리학교 융합전공 흠품이지에 반도체 융합전공은 서울캠에서 진행된다는 초기 정보만 기재돼 있었다. 반도체 융합전공을 담당하는 교수진 역시 서울캠 이과대학 소속 교수진으로만 명기돼 있어 오해는 더욱 커졌다.

전정대 학생회와 소속 학과인 전자공학과 학생회가 반도체 융합전공 신설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자공학과 학생회는 “반도체 관련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국제캠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국제캠 총학생회도 대학본부에 ▲반도체 융합전공 개설 관련 논의 경과 및 협의 사항 공유 ▲반도체 융합전공 개설 관련 향후 계획 ▲학생대표자의 참석 보장을 요구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기획조정처 전략기획팀은 “반도체 융합전공이 학과 개편 중이라는 사실을 공지하지 못해 비롯된 학생들의 목소리에 대해 깊이 통감한다”며 “국제캠과 함께할 수 있는 반도체 융합전공을 만들기 위해 재편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융합전공은 캠퍼스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양캠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것”이라며 “국제캠 학생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반도체 융합전공은 내년 3월부터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반도체 융합전공의 소속 캠퍼스는 ‘공통’으로 표기돼 있으며, 참여학과를 조정하는 것과 더불어 교수진 및 전공과목 역시 추가할 예정이다.